

승강기 책임보험 '과태료 폭탄' 우려

정부가 지난 3월28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책임보험 미가입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폭탄이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4일 광주시 시민안전실 결산심사에서 "지난 3월 개정된 승강기법 시행으로 광주시내 2만기가 넘는 승강기 소유자가 9월27일까지 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후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가입실태 조사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승강기안전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승강기 소유자

9월부터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광주시, 보험 가입실태 파악조차 못해

와 관리주체에 안내공문을 보내는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자료가 공유되고 있지 않고 있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달 27일까지 의무가입 시행 예정이었으나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로 연기된 승강기 책임보험은 미가입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년 말 기준 한국승강기안전

공단 자료에 따른 승강기 등록은 광주시내 전체 2만807기로 동구 2059기, 서구 4937기, 남구 2745기, 북구 5513기, 광산구 5553기다.

광주시의 승강기 안전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119구조 출동은 5728건이고 구조인원은 8165명이다. 출동은 하루 평균 3.1건, 연평균 1000건이 넘고, 구조인원은 하루 4.4명, 연평균 1633명에

달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구·공단 각 1명 3인 1조 총 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올해 5월8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했으나 적발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과태료 12건, 과징금 2건 부과에 그쳐 119구조 출동건수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장 의원은 "매년 적지 않은 승강기 고장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소방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업 행정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청암대 총장 의원면직 보고, 교육부에서 반려

의원면직 적법한지 확인 필요

서형원 청암대 총장의 의원면직 보고가 교육부에서 반려됐다.

4일 청암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청암대 강 모 이사장이 보고한 서형원 총장의 면직 보고를 학교로 되돌려 보냈다.

교육부는 청암학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관에 따라 총장의 의원면직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추후 총장 면직보고를 하는 경우 이사회 회의록과 총장 사직서 등 의원면직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라"고 명시했다.

앞서 학교법인 청암학원은 지난 달 말 청암대 서형원 총장의 사직서를 선임 강모 이사장이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리했다.

청암학원은 이강두 부총장을 총장 직무 대행에 임명하고 정관에 따라 2개월 내 새 총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서 총장과 일부 교수들이 반발했다.

의원 면직된 서 전 총장은 지난 3월 강요에 의해 쓴 사직서이기 때문에 의원면직이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소형 청암대 교수협의회 의장 등 교수협의회 측은 지난 달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청암대학의 정상화 및 서 전 총장의 의원면직 취소를 요구했다.

청암학원은 "이사장의 공석 등으로 사표 수리를 미뤄오다 선임 이사장이 선임되면서 학교 분위가 쇠신 차원에서 사표가 수리됐다"고 설명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무더운 날씨, 물놀이 가장 인기. 전국이 맑고 낮 기온도 30도 이상 오르는 등 더운 날씨가 예보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분수대에서 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아시아항공 지키기 광주시민대책위 출범 "무리한 인수 반대"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아시아나 항공의 무리한 매각에 반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시아나항공 지키기 광주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아시아나항공을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매각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나아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어느 기업에도 매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광주시의 국민기업 인수 또는 지역은행과 광주·전남 상공회의소의 자본 투자 등 다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과 채권단 역시 금호그룹 오너의 무능한 경영 때문에 회사를 매각하려하는 것일 뿐, 회사 자체가 부실기업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연매출 7조원의 거대 국적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다른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을 재벌 대기업에 몰아주겠다는 처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촛불정부를 지체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하는 행태다"고 비판했다.

또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문제를 크게 부풀려 매각 명분을 쌓으려 한다"면서 "그러나 실제 부채는 대부분 장기부채로 항공업 특성상 비싼 항공기 가격으로 인한 리스 형태다. 같은 국적항공사와 비교해도 결코 부실기업이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금호그룹 오너의 무능한

경영에 동조하지 않는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고속을 기반으로 탄생한 광주·전남지역 대표 항토기업으로 호남 지역민의 절대적 성원과 기대를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것은 지역민의 가슴에 멍울을 지게 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변변한 산업단지 하나 없는 광주·전남지역의 항토기업이 잇따라 매각됐다"면서 "아시아나항공까지 매각된다면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이 지역을 경제적으로 고사(枯死)시키겠다는 것이지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현재 금융위원회의 행태는 국정철학인 경제민주화와 맞지 않는 만큼 정부가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신봉우 기자

광주서 독성약초 복용한 70대 숨져

4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서구 한 주택에서 A(75)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민간요법으로 독성약초인 초오를 끊어서 복용했다는 부인의 진술과 주방에서 사용하다가 남은 약초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후사경 안 접힌 차량 골라 턴 5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새벽시간대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턴 혐의(절도)로 이모(5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달 28일 오전 0시5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대형마트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20만원이 든 명품손가방(18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05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이 문이 잠겨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이씨는 절도 혐의로 복역한 뒤 지난해 8월 출소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훔친 명품 손가방을 들고 다니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지난 달 31일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동구매 인터넷 카페 '투자 사기' 수사

전자제품 공동구매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금을 모은 30대 여성이 투자자들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4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전자제품 공동구매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자신이 전자기기를 산 가격에 대량 구매해 이를 되팔아 차익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회원들에게 투자를 유도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투자자들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금액은 약 100여 원이다. 피해 주장 투자자는 지금까지 40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00여원은) 편취 금액은 아니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금액이라 더 수사를 해 봐야 한다"면서 "(고소사) 계속 접수되는 중이라 (고소인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50대 주행 차량 상가 건물 들진 3명 다쳐

충북 증평군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상가 건물로 들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4일 낮 12시 17분께 증평읍 도로에서 A(51) 씨가 몰던 K9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상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여) 씨가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C 씨도 목과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 차량이 반대편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넘는 뒤 교통섬 가로 수를 들이받고 상가로 들이받았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정신질환자, 흉기로 이웃 협박 강제 입원

평소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던 5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59)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50분께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옆집 주민 B(40)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별래를 잡는다고 소란을 피우자 조용히 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죽이겠다"며 흉기로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평소 별래가 없는데 있다고 하는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며 이웃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